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12.(제 13호)

서울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 및 지원 과제*

최현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 서울시 출산·양육 행복지표 개발 연구(2023)
-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2022)
-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 연구(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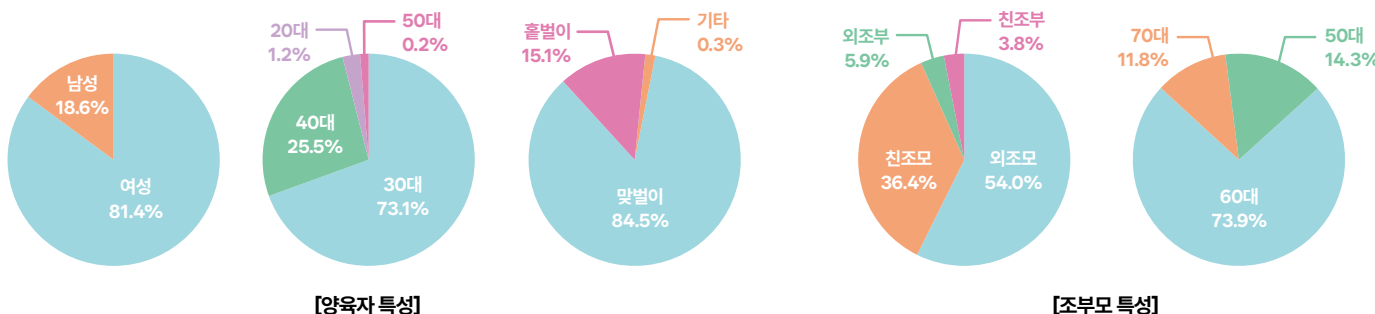
공보육 확충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며 제2의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맞벌이 영유아 양육자의 대리 돌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영유아 가구에서 대리 양육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40.1%이며, 이중 과반수의 대리 양육자가 조부모(57.1%)인 것으로 집계되었다(안현찬 외, 202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논란이 있으나, 양육자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할 수 있다는 점,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조부모가 제2의 양육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손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조부모의 대리 양육 실태와 조부모 양육 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호주,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2023년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만 2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양육 지원 노고를 보상하고 있다.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서울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을 살펴보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의 효과와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 양육자 및 조부모 대상 정책 수요 조사

- ▶ 조사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총 1,109명(양육자(부모) 631명, 조부모 478명)
- ▶ 조사 방법 및 기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2024년 7월 23일~8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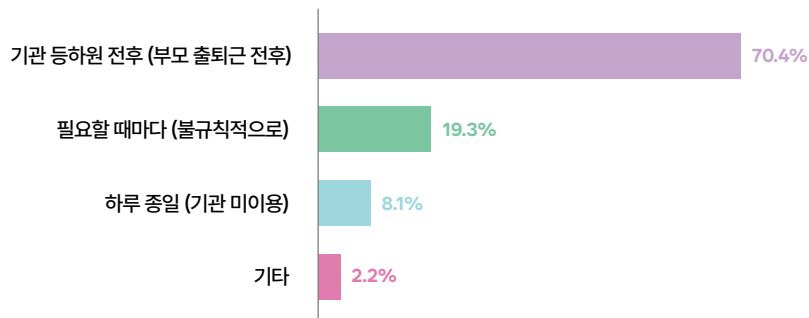


* 본 자료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2024년 수행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최현희, 고윤정, 2024)의 연구 결과 일부 요약 자료임

공적 돌봄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필요한 이유

○ 자녀 기관 보육 시간보다 긴 양육자들의 노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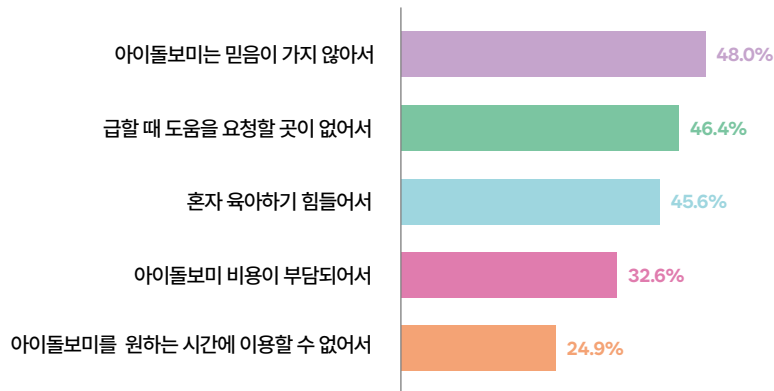
- 대부분의(80% 이상) 양육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등의 공적 돌봄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자녀가 기관에 등원하는 시간 전에 먼저 출근하거나 자녀가 하원한 후 저녁 시간에 퇴근하기 때문에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조부모가 대신 메워주고 있었음.
- 즉, 공적 돌봄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조부모는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지를 돕기 위하여 손자녀 돌봄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



|그림 1|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

○ 신뢰할 수 있고 긴급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혈연에게 자녀를 맡기려는 양육자들의 욕구

- 조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을 부탁한 이유(중복응답)로, '아이돌보미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양육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조력자에게 자녀를 맡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음. 또한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어린 영아를 자녀로 둔 양육자의 경우 잘 모르는 아이돌보미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였음.
- 이어서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 46.4%, '혼자 육아하기 힘들기 때문' 45.6%로 높게 나타나 양육자들이 정기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기보다는 자녀가 아프거나 야근을 해야하는 등 급한 상황일 때, 자신이 아프거나 육아가 버거운 상황일 때 가깝고 편안한 조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에게 자녀 돌봄을 지원받고자 하는 양육자의 욕구가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양육의 '변동성과 긴급성'으로 인하여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아이돌보미의 돌봄 지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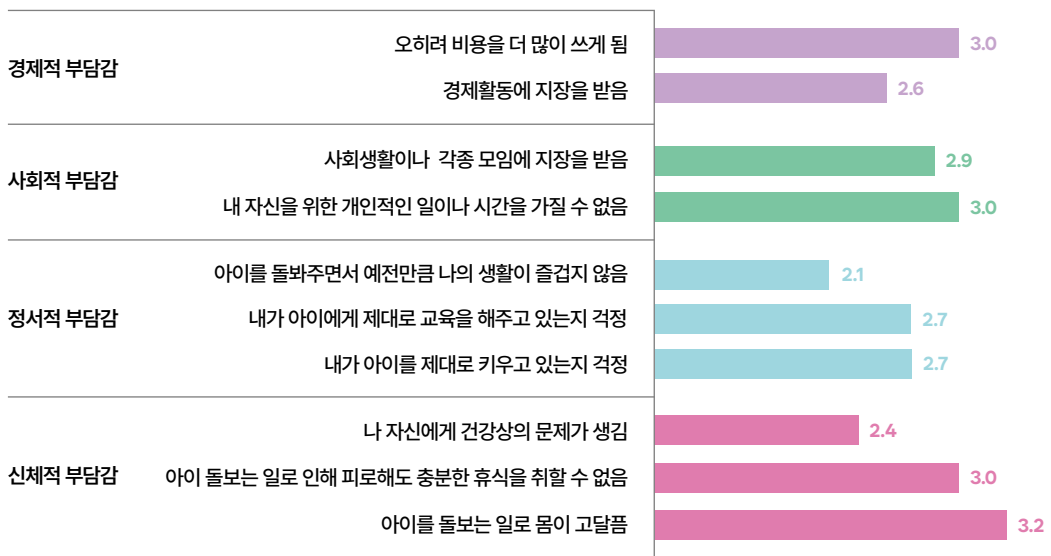


|그림 2|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을 부탁한 이유(중복응답)

손자녀를 돌보며 느끼는 조부모의 어려움

○ 조부모가 느끼는 손자녀 돌봄부담감은 보통 수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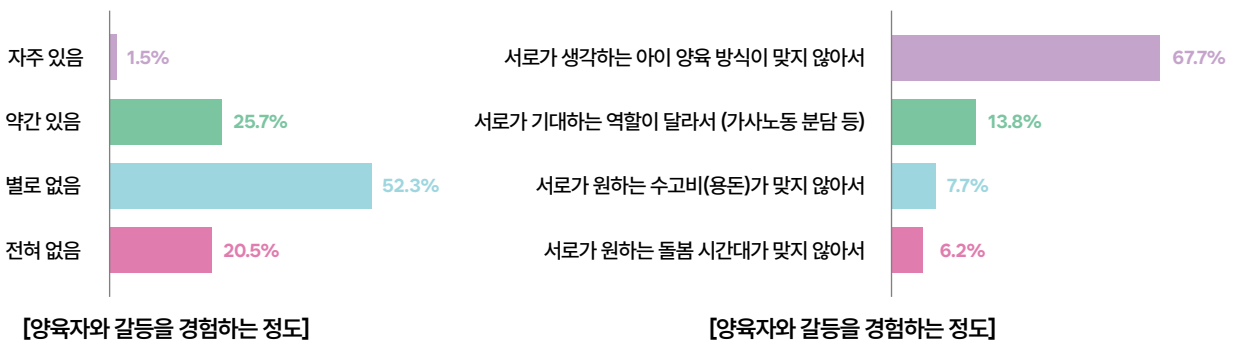
- 조부모가 보고한 손자녀 돌봄부담감은 2~3점으로 보통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나타남. 이중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감은 신체적 부담감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로 몸이 고달프다'의 평균 점수가 3.2점, '피로해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가 3.0점이었음. 이는 고령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에 부친 것으로 해석됨.
- '손자녀를 돌보면서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된다', '개인적인 일이나 시간을 가질 수 없다'에 대한 평균 점수도 3.0점이었음. 이는 손자녀를 돌보며 간식비와 장보기 비용 등이 추가로 지출되어도 양육자에게 쉽사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유로운 시간 사용이 어려운 조부모의 양육 실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3] 조부모가 느끼는 손자녀 돌봄부담감(5점 척도)

○ 조력자 10명 중 3명은 양육 방식 차이 등으로 양육자와 갈등 경험

- 양육자와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27.2%), 갈등이 있는 경우 주로 '서로가 생각하는 양육 방식이 맞지 않기 때문'(67.7%)으로 나타남.
- 조화로운 공동양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며, 공동양육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입이 필요함.



[그림 4] 조부모와 양육자 간 갈등 정도 및 이유

손자녀 돌봄의 긍정적 측면을 증진하려면?

○ 아이돌봄비 지원을 통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 증진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부모들이 위안과 만족을 얻는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데 이를 ‘돌봄보상감’이라고 하며, 경제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 보상감으로 구분됨.
- 조부모의 돌봄보상감은 가족, 친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증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돌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

표 11 조부모의 돌봄보상감 정의

구분	정의
신체적 보상감	실제로 건강이 취약한 고령임에도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보람과 만족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별로 느끼지 못하거나 손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심리적 보상감	조부모가 손자녀와의 친밀감이나 사랑과 같은 심리적 지지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키운 보람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산감을 인지하는 것
경제적 보상감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 친지로부터 재정적 도움이나 후원 및 용돈을 제공받는 등의 경험
사회적 보상감	가족 간의 유대관계 증진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의 경험

출처: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박경애, 2007)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조부모의 돌봄보상감을 증진하는 사회적 지원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조부모가 돌봄보상감을 얼마나 느끼게 되었는지 5점 척도로 평가함. 그 결과 경제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 돌봄보상감 모든 차원에서 돌봄부담감을 넘어서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 특히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이 평균 점수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양육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낌’, ‘가정에서 하는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손자녀 돌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낌’이 3.9점으로 자신의 돌봄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는 보상감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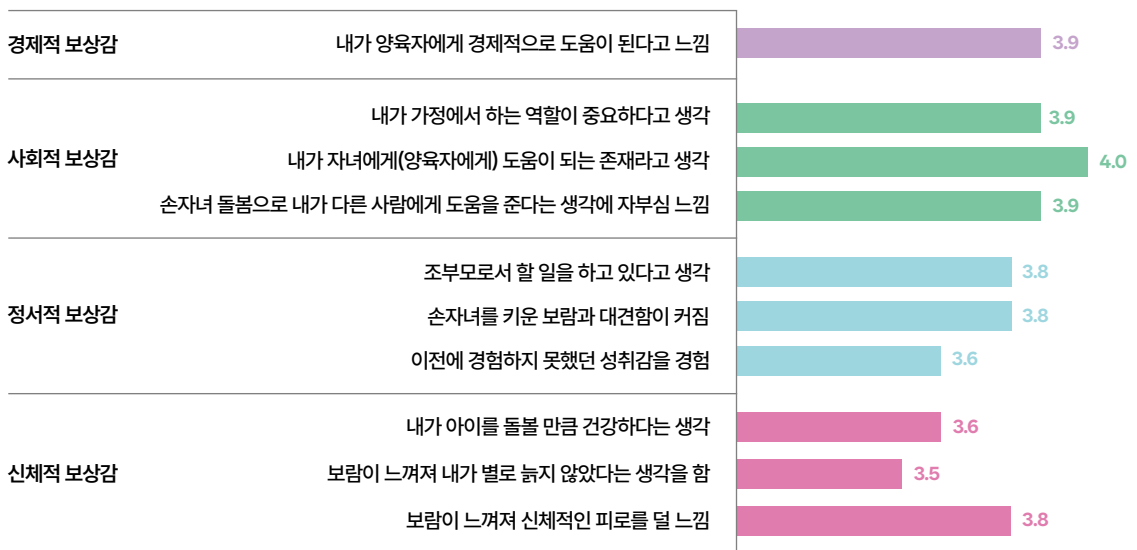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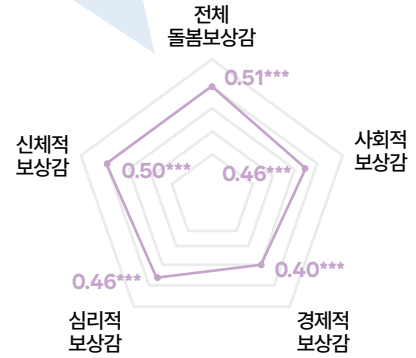


그림 51 조부모가 느끼는 손자녀 돌봄보상감

○ 조부모 교육 만족도와 손자녀 돌봄보상감 간 긍정적 상관관계

- 손자녀 돌봄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부모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양육 상담 지원 및 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왔음(박미경, 김성길, 2023).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서도 조부모의 돌봄 역량 증진을 위하여 교육이 제공되었으며, 교육 만족도와 조력자의 돌봄보상감 간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r=0.51, p<0.001$). 즉, 교육을 통해 돌봄역량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부모가 느끼는 돌봄보상감도 높았음.



[그림 6] 교육 만족도와 돌봄보상감 간 상관관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지원 과제

○ 양육자 근로 시간 단축 및 유연화를 통한 양육공백 해소

- 자발적 손자녀 돌봄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비자발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손자녀 돌봄을 시작하는 근본적 이유는 자녀에 대한 공적 돌봄 시간 대비 양육자의 노동 시간이 길기 때문임. 자녀의 등하원 지원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용률은 저조함(조미라, 박은정, 2023). 공보육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유연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부모권을 보장하는 것이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비자발적 손자녀 돌봄 발생을 방지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 돌봄의 사회화 촉진

-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통해 양육공백을 해소하려는 양육자의 욕구는 주로 혈연관계에 대한 신뢰와 낮은 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함.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양적 확충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 특히 어린 영아 양육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야 함. 현재 보고되고 있는 공공 아이돌보미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강조하고 우수한 아이돌보미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조부모를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확대를 통한 돌봄 가치 인정

- 조부모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통해 자신의 돌봄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등 돌봄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긍정적 보상감을 보고하였음. 조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 양육 실태를 고려하였을 때 조부모의 돌봄보상감을 증진하는 것은 손자녀 돌봄에서의 발생 가능한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이며, 해당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함. 다만 사업이 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손자녀가 초등 저학년이 될 때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손자녀 돌봄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 및 기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조부모를 위한 서비스 및 참여형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돌봄보상감 증진

- 조부모 교육 서비스 만족도와 돌봄보상감 간 긍정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조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양육 방식(놀이방식 및 훈육 등)에서 나타나는 양육자와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공동양육자 관계 증진 프로그램, 서울형 키즈카페를 활용한 참여형 역량 증진 프로그램(놀이코칭) 등을 검토해 볼만 함.

참고문헌

- 박경애, 2007,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25-45.
- 박미경, 김성길, 2023,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지원을 경험한 성인자녀의 자문화기술지”, 『미래교육연구』, 13(1), 77-114.
- 안현찬, 문진영, 하정입, 한진아, 20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민간기관 선정과 협력 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미라, 박은정,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